

미디어로서의

『중등교육국문독본(中等教育国文読本)』

— 편집과 발췌 그리고 은폐에 의한 교과서 서술 —

김효숙 _ 세종대학교 국제학부 일어일문학 전공 초빙교수

목 차

- I. 들어가며
- II. 『중등교육국문독본(中等教育国文読本)』 및 하가 야이치(芳賀矢一)에 대해서
- III. 『중등교육국문독본(中等教育国文読本)』과 『국문학역대선(国文学歴代選)』
- IV. 『중등교육국문독본』의 『겐지모노가타리』
- V. 나오며

국문초록

『중등교육국문독본(中等教育国文読本)』은 조선총독부가 간행한 ‘국어’(일본어) 교과서이다. 그 중에서 권8에는 『겐지모노가타리』와 관련된 글이 나오는데, 필자의 조사 결과 해당부분은 하가 야이치(芳賀矢一)가 저술한 『국문학역대선(国文学歴代選)』에서 발췌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런데 『중등교육국문독본』과 『국문학역대선』의 해당부분을 비교해 보면, 많은 부분의 생략으로 인해 두 글의 내용이 사뭇 다르다. 『국문학역대선』은 일본 헤이안 시대를 ‘허영심’이 만연한 시대로 규정하고, 『겐지모노가타리』는 그러한 시대상을 사실(寫實)적으로 묘사한 작품으로 전대의 전기적인 작품들과는 다르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였다. 그러나 『중등교육국문독본』은 헤이안 시대와 관련된 부정적인 평가를 모두 생략한 채 현실세계를 그대로 옮겼다는 점만을 강조함으로써, 하가 야이치의 헤이안 시대에 대한 부(負)의 평가가 완전히 은폐되었다.

일제강점기에 조선총독부가 간행한 교과서 『중등교육국문독본』은 편집, 발췌라는 행위를 통해 일본의 헤이안 시대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는 은폐하고 ‘일본문학작품’의 탁월성만을 강조한 것이다.

주제어

일제강점기 교과서, 겐지모노가타리, 중등교육국문독본, 국문학역대선, 하카 아이치

.....

I . 들어가며

서기 1000년경에 성립된 『겐지모노가타리(源氏物語)』는 현재에 이르기까지 각 시대마다 다양한 관점에서 다채로운 평가를 받아 왔다. 예를 들면 일찍이 『사라시나 일기(更級日記)』에는 “‘이 겐지모노가타리를 1권부터 모두 읽게 해주세요’하고 마음속으로 빌었다”¹⁾라는 서술이 있는데, 이를 통해 당시 귀족여성들의 『겐지모노가타리』에 대한 동경과 탐독 열망을 알 수 있다. 후지와라노 순제이(藤原俊成, 1114~1204)는 ‘겐지를 보지 않은 가인(歌人)은 실로 유감’²⁾이라는 말을 남겼는데, 『겐지모노가타리

1) 『사라시나 일기』는 다카스에 딸(菅原孝標女)이 아버지의 지방부임이 끝나고 귀경길에 오른 1020년부터 1059년까지의 일들을 기록한 일기문학으로 성립은 약 1060년이라는 것이 통설이다. 『겐지모노가타리』가 성립된 지 약 60년 뒤부터 이미 귀족들이 탐독하기를 열망하는 대상이 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사라시나 일기』의 해당 본문 “この源氏の物語、一の巻よりしてみな見せたまへ」と心のうちにいのる”의 인용은 藤岡忠美·犬養廉·中野幸一·石井文夫 校註, 『和泉式部日記 紫式部日記 更級日記 讃岐典侍日記』, 新編日本古典文学全集, 小学館, 1994, p.297에 의거한다.

* 본고의 번역은 필자에 의한 것으로, 가능한 한 직역을 하였음을 밝혀 둔다. 이하 같음.

리』가 일본 고유 정형시 와카(和歌)의 필수 지침서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헤이안 시대 말기부터 불교적인 입장에서 무라사키시키후(紫式部)가 지옥에 떨어진 설화가 다수 만들어졌고, 유교적인 입장에서는 그 주제가 ‘권선징악론’이라고 평가되었다. 그리고 주지하는 바와 같이 근세에는 이러한 유교적인 관점이 아니라, 문학작품 그 자체로 평가해야 한다는 모토오리 노리나가(本居宣長)의 ‘모노노아와레 론(もののあはれ論)’ 등, 실로 다양한 시점에서 평가되고 향유되어 온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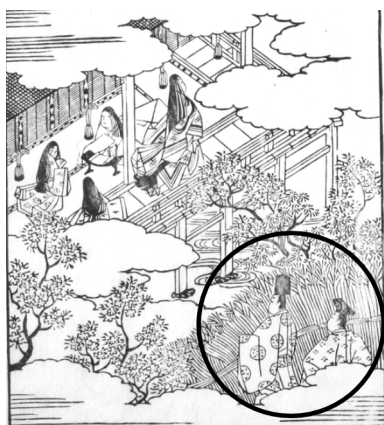
『겐지모노가타리』는 특히 주인공 히카루겐지(光源氏)와 새어머니 지쓰보(藤壺)와의 애정관계, 그리고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즉위한다는 내용으로 말미암아 근대기에 있어서 많은 우여곡절을 겪은 작품이다. 특히 제2차 세계대전 전후에는 ‘불경’스러운 작품이라는 비난³⁾을 받으며 예정되었던 무대상연이 갑자기 금지⁴⁾되거나 현대어역 출판이 연기되었다. 또한 『겐지모노가타리』가 교과서에 수록되는 과정에 있어서도 많은 편입이 이루어졌다. 예를 들면 제4기 일본 국정교과서 『소학국어독본(小学国語読本)』에는 와카무라사키 권(若紫卷)이 채용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와카무라사키의 천지남만함만이 강조되고 히카루겐지와 관련된 내용은 일제히 삭제되었다. 이는 함께 삽입된 삽화를 통해 여실히 드러난다. 즉

2) 12세기 중엽에 성립된 『육백번가합(六百番歌合)』에서 가단(歌壇)의 제1인자였던 후지와라노 슌제이(藤原俊成)는 “겐지를 보지 않은 가인은 유감이다(源氏見ざる歌詠みは遺恨の事なり)”라는 말을 남겼는데, 이로 미루어 볼 때 당시 가인(歌人)에게 있어서 『겐지모노가타리』가 필수 참고서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육백번가합(六百番歌合)』의 본문 인용은 久保田淳·山口明穂 校註, 『六百番歌合』, 新日本古典文学大系, 岩波書店, 1998, p.187에 의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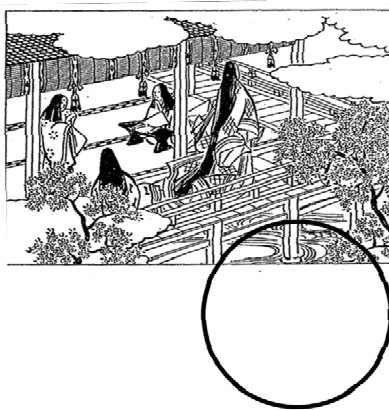
3) 小林正明, 「昭和戦時化の『源氏物語』」, 『源氏文化の時空』, 森話社, 2000, pp.78-99.

4) 1933년 11월 22일자 요미우리(読売) 신문 조간에는 「기대의 “겐지모노가타리” 돌연 상연금지(期待の“源氏物語”突如上演禁止)」, 「고전의 지보 봉살(古典の至宝封殺)」이라는 타이틀로 개막하기 4일 전에 돌연히 경시청 보안부가 중지를 명했다는 기사가 게재되어 있다.

『소학국어독본』에 실린 삽화는 아래 그림처럼 『에이리본 겐지모노가타리(繪入本 源氏物語)』를 그대로 모방하여 그린 것임에도 불구하고, 『에이리본 겐지모노가타리』에 배치되어 있던 와카무라사키를 엿보는 히카루겐지의 모습은 완전히 삭제된 것이다. 히카루겐지가 와카무라사키를 우연히 훑쳐보고, 후지쓰보와 매우 닮은 점에 매료되어 처로 맞이하는 스토리가 히카루겐지와 후지쓰보의 밀통으로 직결되기 때문에 ‘소학국어’ 이야기로는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여 ‘교육적 배려’를 했다는 것이다⁵⁾. 그리고 이러한 논리 하에 편집되고 발행된 『소학국어독본』은 일제강점기의 조선에 있어서도 큰 비판 없이 그대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⁶⁾



『에이리본 겐지모노가타리』
「와카무라사키 권」⁷⁾



일본 제4기 국정교과서
『소학국어독본』 권118)

5) 김영심, 「동화화(童話化)된 ‘국민문학’: 일제 『소학국어독본』 속의 겐지모노가타리」, 『일본연구』 45권, 2010, pp.217~237.

6) 有働裕, 「小学校国語教材『源氏物語』と時局—「サクラ読本」における本居宣長—」, 『国語国文学報』55, 愛知教育大学国語国文学研究室, 1997, pp.41~58.

7) 八尾勘平衛 編, 『繪入本 源氏物語』, 寺町通(洛陽), 1654, 원문 페이지 수 기재 없음.

그런데 『겐지모노가타리』는 일제강점기의 초등교육에서 사용되던 교과서 『소학국어독본』 뿐 아니라, 당시 고등보통학교의 교재인 『중등교육국문독본(中等教育国文読本)』(1930~1934)에도 소개되어 있다.

본고에서는 이 조선총독부 간행 『중등교육국문독본』의 서술을 중심으로 『겐지모노가타리』가 일제강점기의 조선에서 특히 ‘교과서’ 안에서 어떻게 서술되고 이용되었는지 검토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검토를 통해 과거 절대적 신뢰를 동반하는 텍스트 ‘교과서’가 어떻게 편집되고, 왜곡되었으며, 그리고 은폐되었는지 그 과정을 확인하고자 한다.

II. 『중등교육국문독본(中等教育国文読本)』 및 하가 야이치(芳賀矢一)에 대해서

『중등교육국문독본(中等教育国文読本)』은 조선총독부에서 간행된 ‘국어(国語)’ 즉 일본어 교과서로, 일제강점기 5년제 남자 중학교인 ‘고등보통학교(高等普通学校)’의 생도를 대상으로 각 학년마다 2권씩 학습하는 것을 목표로 발행되었다. 그 구성을 살펴보면 총10권으로 각 권에는 각각 30개 전후의 항목이 배치되어 있으며, 주로 일본의 역사, 문화, 문학작품에 관한 내용으로, 조선과 관련된 사항은 매우 미비하다. 또한 학년이 진급됨에 따라 점차 고전 작품을 학습하는 구성인데⁹⁾ 『겐지모노가타리』와 관련된 단원은 고등보통학교의 4학년이 학습하는 제8권에 배치되어 있다. 그 목차¹⁰⁾를 일별하면 다음과 같다.

8) 文部省 編, 『小学国語読本 尋常科用 卷十一』, 東京書籍, 1938, p.19.

9) 金孝淑, 「植民地における『源氏物語』-『中等教育国文読本』の記述をめぐって-, 『平安朝文学』復刊27, 平安朝文学研究会, 2019, pp.47~50.

10) 朝鮮總督府, 『中等教育国文読本』 卷8, 朝鮮書籍印刷株式会社, 1933(이하 『中等教

1. 생활의 기초(生活の基礎)	14. 오장원(五丈原)
2. 역사와 자연과 사람(歴史と自然と人)	15. 안식(安息)
3. 가을의 본질(秋の本質)	16. 가인 사이교(歌人西行)
4. 요시노의 가을안개(吉野の秋霧)	17. 눈의 날(雪の日)
5. 하얼빈 산책기(ハルビン散策記)	18. 세모(歲暮)
6. 여행론(旅行論)	19. 임자시필의 사(任子試筆の詞)
7. 자력과 운명(自力と運命)	20. 인생을 노래하는 시(人生をうたへる詩)
8. 이마요 이제(今様二題)	21. 밀레(ミレー)
9. 북한산에 오르다(北漢山に上る)	22. 여행길(旅路)
10. 의고소품(擬古小品)	23. 불상조각(佛像彫刻)
1. 모깃불(蚊遣火)	24. 모모노아와레(物のあはれ)
2. 벌레 소리(虫の音)	25. 청문사평(淸文私評)
3. 소감 있어 적다(所感ありて記す)	26. 쇼와 시대(昭和時代)
11. 월야의 미관(月夜的美観)	27. 간코의 좌천(菅公の左遷)
12. 범인에게 들어라(凡人に聴け)	28. 헤이안초 시대의 문학(平安朝時代の文学)
13. 아쓰모리의 최후(敦盛最期の事)	

위의 목차를 보면 『중등교육국문독본』 권8에는 ‘가인 사이교’ ‘청문 사평’ ‘간코의 좌천’ ‘모노노아와레’ 등 헤이안(平安) 시대에 성립된 문학작 품 및 해당시대의 역사적 인물 관련 기사가 게재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중에서도 『겐지모노가타리』와 같은 일본 중고(中古)문학과 관련 된 사항은 제일 마지막 장인 ‘28. 헤이안초 시대의 문학’에 기술되어 있다.

이 ‘헤이안초 시대의 문학’은 목차 및 본문 내 소재목에서 해당부분이 하가 아이치(芳賀矢一)의 집필이라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하가 아이치 (1867~1927)는 근대 일본문학연구자로서, 일본어·일본문학을 하나의 학 문분야로 수립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 인물이다. 또한 일본 ‘국 어’ 교과서 내용 정립에 중심적인 역할을 한 인물¹¹⁾로 『국문학독본(国文

育国文読本』 卷8), pp.1~3.

11) 八木雄一郎, 「中学校教授要自における教科内容決定の根拠—「講読(「国語講読」)および「国文学史」の規定の変遷とその意味—, 『学校教育学研究紀要』, 第2号, 2009, p.102.

学読本), 『제국독본(帝国読本)』, 『여자신국문(女子新国文)』, 『제국실업독본(帝国実業読本)』 등의 교과서를 저술 및 편집하였으며, 그가 직접 편집에 관여하지 않은 일본 근대기 각종 교과서에도 그의 문장이 다수 게재되어 있다. 그렇다면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에서 발행한 『중등교육국문독본』에서 하가 야이치는 『겐지모노가타리』를 어떻게 서술하고 있는지 이하 검토해보고자 한다.

Ⅲ. 『중등교육국문독본(中等教育国文読本)』과 『국문학역대선(国文学歴代選)』

주지하는 바와 같이 『겐지모노가타리』의 가장 큰 특징이라 하면 일본 고유문자 ‘가나(かな)’로 쓰인 ‘여류문학작품’이라는 것을 들 수 있는데, 이러한 평가는 조선총독부 간행 『중등교육국문독본』 ‘헤이안초 시대의 문학’에서도 언급된다. 하가 야이치는 이 시대의 가장 주목할 만한 특징으로 일본고유문자의 보급을 들며 다음과 같이 논하고 있다.

〈자료 1〉 『중등교육국문독본』

28 헤이안초 시대의 문학

하가 야이치

헤이안초(平安朝)시대는, 중국문화 영향이 점차 우리 문화와 융합한 시대로서, 우리 특유의 문화도 또한 점차 발전의 기운을 보인 시대다. 소위 화혼한재(和魂漢才)라는 말은 실로 이 시대의 조어(造語)이다. 특히, 문학에 있어서 최대의 관계가 있는 것은 가나(假名)문자의 제작이다. 가나(假名)문자로 일반적으로 국어를 쓰기에 이르게 된 것은, 분토쿠(文徳)·세이와(清和) 전후로 현저한 발달을 하여, 헤이안초 문학계를 찬란하게 하였다. 그리고 와카(和歌)의 발달과 이에 대한 완상(翫賞)은 모든 문학의 근거를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¹²⁾

위 인용문에서 알 수 있듯이 하카 야이치는 ‘헤이안초 시대’의 특징으로 중국문화와 일본문화가 ‘융합’한 시대라는 것, 그리고 일본 ‘특유’의 문화가 ‘발전’하기 시작한 시대라는 것을 들고 있다. 특히 문학작품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일본고유문자인 ‘가나(假名)’가 ‘제작’되었다는 것에 가장 큰 의의를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위의 『중등교육국문독본』 권8이 간행된 것은 1933년으로, 목차 및 본문 내 소재목에 집필자로 명시되어 있는 하카 야이치는 1927년에 이미 절명한 뒤였다. 즉 해당 글은 하카 야이치가 『중등교육국문독본』을 위해 새로이 집필한 것이 아니라, 제3자가 하가의 기존 글을 재록한 것일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논자는 『중등교육국문독본』의 해당부분이 하카 야이치의 어떤 글을 재록한 것인지 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 분석을 거친 결과, 본 문장은 1908년에 발행된 『국문학역대선(国文学歴代選)』 「서론(序論)」 중의 ‘중고문학(中古文学)’에서 발췌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음 <자료 2>는 『국문학역대선』의 ‘중고문학’ 서두 부분이다.

<자료 2> 『국문학역대선』

중고문학

중고문화 유입 이후, 물질적 및 정신적인 면에 있어서 우리나라 문명이 급격히 발달한 것은 추찰하고도 남는다. 후지와라(藤原) 나라(奈良) 100년의 세상을 거쳐, 간무(桓武)천황이 도읍 장안(長安)을 모방하여 헤

12) 『中等教育国文読本』 卷8, 1933, pp.190~191.

“平安朝時代は、支那文化の影響の次第にわが文化と融合したる時代にして、我が特有の文化も亦次第に発展の氣運を見たる時代なりとす。いはゆる和魂漢才の語は、実にこの時代の造語なりしなり。就中、文学の上に最大の關係を有するは假名文字の制作なり。

假名文字を以て一般に国語を写すに到りしは、文徳・清和前後して著しき發達を爲し、平安朝の文学界を燦爛たらしめたり。而して和歌の發達と、これに対する翫賞とは、あらゆる文学の根底を成せるが如し。”

이안조(平安城)를 정하신 후, 사이초(釋最澄)는 덴다이산(天台山)에서 수행하여 엔랏쿠지(延曆寺)를 초창하고, 뒤이어 구카이(空海)가 고야산(高野山)을 개기했다. 사가(嵯峨) 준나(淳和) 두 왕이 한문학에 뛰어나서, 한학과 불교의 전파홍통이 우리나라 상하로 널리 퍼짐으로써, 본지수적설이 일찍이 주창되었으며, 불교도 또한 진호국가용으로 사용되어, 이후로 신유불(神儒佛) 삼도(三道)가 서로 어긋남 없이 국민의 도덕을 유지해 온 것은, 마치 헤이안쿄(平安京)가 천 년간 제도(帝都)였듯이, 메이지 유신에 이르기까지 조금도 변화한 적이 없었다. 헤이안 시대는, 중국문화 영향이 점차 우리 문화와 융합한 시대로서, 우리나라 특유의 문화도 또한 점차 발전의 기운을 보인 시대다. 소위 화혼한재(和魂漢才)라는 말은 실로 이 시대의 조어(造語)이다. 특히, 문학에 있어서 최대의 관계가 있는 것은 가나(假名)문자의 제작으로, 나라초(奈良朝)에 있어서 한자를 음운문자로 사용한 것, 혹은 그것을 초서체로 하거나, 혹은 그 편방을 나누어 가나(假名)로 만들었다. 음표문자로 사용되기에 이르러, 한문 한시 제작은 여전히 초청 과거 시험법에는 필수과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한편으로 국어를 가지고 쓰는 순국문학의 발생을 촉진해 왔다. 당시의 건축 조각회화 등이 일본식의 발달을 이룬 것과 마찬가지로, 문학도 또한 특수한 발달을 이루어 중국의 강대한 문화에 압복되지 않은 우리 국민의 원기를 증명했다.

가나(假名)문자로 일반적으로 국어를 쓰기에 이르게 된 것은, 분토쿠(文徳) 세이와(清和) 전후로 현저한 발달을 하여, 헤이안초 문학계를 찬란하게 하였다. 그리고 와카(和歌)의 발달과 이에 대한 완상(翫賞)은 모든 문학의 근저를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13)

- 13) 芳賀矢一, 『国文学歴代選』, 東京文会堂, 1908(이하 『国文学歴代選』), pp.19~20.
 “支那文化輸入以後, 物質上及び精神上に於て我国文明の激進せしは推察に除あり. 藤原奈良百年の世を経て, 桓武天皇の長安の都に倣ひて平安城を奠め給ひし後, 釋最澄は天台山上に學びて延曆寺を草創し, 尋で空海が高野山を開基せるあり. 嵯峨淳和二帝の漢文学に堪能におはせしとともに, 漢學と仏教との傳播弘通は我国の上下に遍及し, 本地垂迹の説早く唱へられて, 仏教も亦鎮護國家の用に供せられ, 爾來神儒佛の三道は相杆格することなくして國民の道徳を維持し來れる事は, 恰も平安京の千年間の帝都たりしが如く, 明治維新の時に至るまで毫も變化を受くることなかりき. 平安時代は支那文

위 <자료 2> 『국문학역대선』의 인용문 중에서 밑줄부분은 <자료 1> 『중등교육국문독본』과 동일한 부분으로, 문장, 단어에 이르기까지 거의 대부분 일치함을 알 수 있다. 밑줄 부분 중에서도 서로 상이한 부분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국문학역대선』	『중등교육국문독본』
①	헤이안 시대(平安時代)	헤이안초 시대(平安朝時代)
②	우리문화(我文化)	우리문화(わが文化)
③	우리나라 특유의 문화(我國特有の文化)	우리 특유의 문화(我が特有の文化)
④	문학에 있어서(文學上に)	문학에 있어서(文學の上に)
⑤	국어를 쓰는데 이르게 된 것은 (國語を寫すに至りしは)	국어를 쓰는데 이르게 된 것은 (國語を寫すに到りしは)
⑥	세이와(清和) 분토쿠(文徳)	분토쿠(文徳)·세이와(清和)
⑦	이(之)	이(これ)

위의 표를 보면 『국문학역대선』과 『중등교육국문독본』의 차이는 대부분이 표기법의 차이라는 걸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②에서 『국문학역대선』은 한자(我)를 사용하고 『중등교육국문독본』은 그것을 풀어서 히라가나(わが)를 사용했다. 물론 이 경우 그 의미는 물론 일본어의 발음도 동일한데, ④⑤⑦도 이와 같은 표기법 등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 그

化の影響の次第に我文化と融合したる時代にして、我國特有の文化も亦次第に發展の氣運を見たる時代なりとす。いはゆる和魂漢才の語は實にこの時代の造語なりしなり。就中文學上に最大の關係を有するは假名文字の制作にして、奈良朝に於ては漢字を音韻文字として使用せしものが、或は之を草体にし、或は其扁旁を割きて假名となし、音標文字として用ゐらるゝに至りしより、漢文漢詩の制作は尚朝廷科擧の試験法には必須科目たりしに關らず、一面に於て國語を以て記せる純國文學の發生を促し來り。當時の建築彫繪等が日本式の發達をなしたると同じく、文學も亦特殊の發達をなして支那の強大なる文化に壓伏せられざりし我國民の元氣を證明せり。

假名文字を以て一般に國語を寫すに至りしは清和文徳以後にあらんか、韻文としての和歌、散文としての物語は相前後して著き發達を為し、平安朝の文學界を燦爛たらしめたり。而して和歌の發達と之に對する翫賞とはあらゆる文學の根柢を成せるが如し。……”

*강조점은 원문에 의거하며, 밑줄은 논자에 의한 것임.

리고 ①③은 『국문학역대선』에서는 ‘헤이안 시대(平安時代)’ ‘우리나라 특유의 문화(我國特有の文化)’이었던 것이 『중등교육국문독본』에서는 각각 ‘헤이안초 시대(平安朝時代)’ ‘우리 특유의 문화(我が特有の文化)’로 미세하게 바뀌었다. ⑥은 세이와(清和), 분토쿠(文徳) 두 왕 중에 어느 쪽을 먼저 둘 것인가 하는 차이이다. 이러한 대단히 미세한 상이점을 제외하고는 『중등교육국문독본』 ‘헤이안초 시대의 문학’ 부분은 『국문학역대선』 「서론」의 ‘중고문학’의 일부와 거의 완전히 일치하는 바 해당부분은 『국문학역대선』에서 발췌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더욱 중요한 것은 발췌 혹은 편집을 거친 『중등교육국문독본』의 『겐지모노가타리』 관련 글이 원문이라고 할 수 있는 『국문학역대선』의 그것과 과연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중등교육국문독본』의 ‘헤이안초 시대의 문학’과 『국문학역대선』의 ‘중고문학’은 그 전체적인 분량에 있어서 크게 차이가 있다. 『국문학역대선』이 압도적으로 긴데, 『겐지모노가타리』 관련 부분만을 봐도 『중등교육국문독본』은 약 500자, 『국문학역대선』은 약 4,000자로 거의 8배 정도의 분량 차이가 있다. 따라서 『국문학역대선』과 그 일부를 발췌하여 편집한 『중등교육국문독본』은 내용면에서도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다음 장에서 계속해서 논하고자 한다.

IV. 『중등교육국문독본』의 『겐지모노가타리』

위에 제시한 <자료 1> <자료 2> 두 인용문 뒤에는 각각 헤이안 시대의 대표적인 작품들 예를 들면 『고킨와카슈(古今和歌集)』, 『이세모노가타리(伊勢物語)』, 『다케토리모노가타리(竹取物語)』 등에 대한 설명이 이어진 다음, 『겐지모노가타리』에 대한 서술이 나온다. 먼저 『중등교육국문독본』

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다.

〈자료 3〉 『중등교육국문독본』

겐지모노가타리는 무라사키시키키부(紫式部)가 쓴 것으로 54첩(帖). 전 반은 히카루겐지(光源氏)를 주인공으로 하고, 후반 10첩은 가오루(薰) 대 장을 주인공으로 한다. 권수로 봐도 헤이안초(平安朝) 시대 제일의 대작 일 뿐 아니라, 전편을 통해 각색이 정연하여 흐트러짐이 없다. 주인공을 둘러싼 각종 여성의 성격도 명료히 발휘되어, 각 국면마다 변화도 대단 히 많다. 헤이안초 시대의 이야기는 궁정을 중심으로 한다. 겐지모노가 타리는 실로 헤이안초 상류사회의 심정을 영사하였으며, 엄밀한 필체, 궁 정을 둘러싼 귀신(貴神) 생활의 모습을 잘 전하였다. 대체적으로 현실적 이며, 전기적이지 않다. 우쓰호모노가타리에 비하면, 대체적으로 한층 더 현실적이 되었으며, 더욱이 불교의 인과의 도리를 썼다. 겐지모노가타리 가 대작인 이유는 그 인물묘사에서처럼 그 자연을 그린 문사(文辭)도 현 란정묘하다는 점에 있다. 인사(人事) 묘사 뒤에는 반드시 자연 배경이 따 른다. 상고 이래로 인사와 자연을 융합한 시적(詩的) 사상은 이에 이르러 최대로 발달하였다. 반은 와카(和歌)를 많이 활용하여 지문(地の文)에는 반드시 와카의 경정(景情)이 포함되어 있다. 겐지모노가타리는 바로 와 카가 가장 훌륭한 작품이다. 후세의 가인(歌人)이 겐지모노가타리를 두 고 가인 필독의 서(書)라고 한 것은 실로 이유 없는 일이 아니다. 14)

14) 『中等教育国文読本』 卷8, 1933, pp.196~198.

“源氏物語は紫式部の著、前後五十四帖、前半は光源氏を主人公とし、後半の十帖は薰大将を主人公とす。巻数を以ても平安朝第一の大作たるのみならず、前篇貫通の脚色整然として紊れず、主人公を圍繞せる各種の女性の性格も明瞭に發揮せられ、局面の變化も亦頗る多し。平安朝時代の物語は宮廷を以て中心とす。源氏物語は實に平安朝の上流社会の心情を映写し、艶美の筆、能く宮廷を圍繞せる貴神生活の面影を伝へたり。大体において現実的にして、伝奇的ならず。うつば物語に比すれば、概して、一層現実的となり、ただ仏教の因果の理を認めたるのみ。源氏物語の大作たる所以は、その人物の描写に於けると同じく、その自然を描ける文辭の絢爛精妙なる点在り。人事の描写の後には必ず自然の背景を添ふ。上古以来、人事と自然とを融合せる詩的思想は、こゝに到りて最大の發達をなせるなり。その半面は和歌の趣味にして、地の文には必ず歌の景情を含めり。源氏物語は即ち和歌の最も大なる

위 인용문에는 『겐지모노가타리』의 작자, 구성 등에 대한 간략한 정보와 함께, 이 작품이 왜 ‘헤이안초 시대 제일의 대작’인지 그 뛰어난 점이 서술되어 있다. ‘권수’ 즉 작품의 길이를 기준으로 해도 ‘대작’일뿐 아니라 내용적으로도 전체적으로 ‘정연’하다고 한다. 또한 등장인물의 성격이 다양하고 그 성격이 ‘명료’하게 그려진 것도 평가의 요소로 작용하였으며, ‘헤이안초’라는 시대와 관련해서는 ‘상류사회의 심정’을 ‘사실적’으로 ‘영사’한 것을 들고 있다. 그리고 ‘문사(文辭)’가 아름답고 특히 일본 고유의 정형시 ‘와카(和歌)’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것도 높은 평가를 받는 데 큰 몫을 했다고 한다. 전반적으로 『겐지모노가타리』의 구성, 내용, 문체 등 모든 면에 있어서 ‘헤이안초 시대의 제일의 대작’임을 강조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서술이 『중등교육국문독본』의 원전이라고 할 수 있는 『국문학역대선』에는 어떻게 기술되어 있는지, 혹은 발췌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취사선택이 이루어졌는지 이하에서 분석해보고자 한다. 아래 <자료 4>는 『국문학역대선』인데 편의를 위하여 『중등교육국문독본』의 내용과 다른 부분에는 밑줄을 가하였으며, 생략이 긴 부분은 ‘중략’ 및 ‘후략’으로 표시하였다.

<자료 4> 『국문학역대선』

겐지모노가타리, 전후 54권(卷), 전반은 후지씨(藤氏)가 아닌 어머니에 게서 태어난 히카루겐지(光源氏)를 주인공으로 하여, 그 성공한 연애를 서술하고, 후편 우지(宇治)10첩은 표면상으로 겐지의 자식이지만 실은 자 식이 아닌 가오루 대장(薰大将)을 주인공으로 하여, 그 실패한 연애를 서 술하였다. 권수를 봐도 헤이안초(平安朝)시대 제일의 대작일 뿐 아니라, 전편을 통해 각색이 정연하여 흐트러짐이 없다. 주인공을 둘러싼 각종

るものなり。後世の歌人が源氏物語を以て歌人必読の書となししも、真に故なきに
あらず。”

여성의 성격도 명료히 발휘되어, 각 국면마다 변화도 대단히 많다. …①
(중략)… 헤이안초 시대의 이야기는 궁정을 중심으로 한다. 겐지는 실로
 헤이안초 상류사회의 심성을 영사하였으며, 엄미한 필체, 궁정을 둘러싼
 귀신(貴紳) 생활의 모습을 잘 전하였다. 대체적으로 사실(寫實)적이며,
 전기적(伝奇的)이지 않다. …②**(중략)**… 우쓰호모노가타리에 비하면, 대
 체적으로 한층 더 사실(寫實)적이 되었으며, 더욱이 불교의 인과의 도리
 를 썼다. …③**(중략)**… 겐지모노가타리가 대작인 이유는 그 인물묘사에
 서처럼 그 자연을 그린 문사(文辭)가 현란정묘하다는 점에 있다. 인사(人
 事) 묘사 뒤에는 반드시 자연 배경이 따른다. 상고 이래로 인사와 자연을
 융합한 시적(詩的) 사상은 이에 이르러 최대로 발달하였다. 반은 와카(和
 歌)를 많이 활용하여 지문(地の文)에는 반드시 화가의 경정(景情)이 포함
 되어 있다. 겐지는 바로 와카(와카)가 가장 훌륭한 작품이다. …**(중략)**…
 후세의 가인(歌人)이 겐지모노가타리를 두고 가인 필독의 서(書)라고 한
 것은 실로 이유 없는 일이 아니다. …**(후략)**…¹⁵⁾

위의 『국문학역대선』의 『겐지모노가타리』관련 서술을 보아도, 〈자
 료 3〉 『중등교육국문독본』과 문장, 단어 등이 거의 완전히 일치하는 바,

15) 『国文学歴代選』, pp.33~41.

“源氏物語, 前後五十四卷, 前半は藤氏ならぬ人の母に生れたる光源氏を主人公とし, その恋の成功を叙述し, 後篇の宇治十帖は表面上源氏の子にして実は実子にあらぬ薫大将を主人公として, その恋の失敗を叙述す. 卷数を以ても平安朝第一の大作たるのみならず, 前篇貫通の脚色整然として紊れず, 主人公を圍繞せる各種の女性の性格も明瞭に發揮せられ, 局面の変化も亦頗る多し. …(中略)…平安朝の物語は宮廷を以て中心とす. 源氏は実に平安朝の上流社会の心性を映写し, 艶美の筆能く宮廷を圍繞せる貴紳生活の面影を伝へたり. 大体において寫實にして伝奇的ならず. …(中略)…うつばに比すれば, 大体に於て一層寫實的となり, ただ仏教の因果則を認めたるのみ. …(中略)…源氏の大作所以はその人物の描写に於ると同じく, その自然を描ける文辭の絢爛精妙なる点に在り. 人事の描写の後には必ず自然の背景を添ふ. 上古以来人事と自然とを融合せる詩的思想は, こゝに至りて最大の發達をなせるなり. その半面は和歌の趣味にして, 地の文には必ず歌の景情を含あり. 源氏は即ち和歌の最も大なるものなり. …(中略)…後世の歌人が源氏物語を以て歌人必読の書となししも, 真に故なきに非ず. …(後略)…”

『중등교육국문독본』은 『국문학역대선』에서 인용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겐지모노가타리』 관련 내용의 분량은 『국문학역대선』이 『중등교육국문독본』의 약 8배이다. 따라서 『중등교육국문독본』에는 생략된 부분이 매우 많다. 예를 들면 등장인물의 개별적인 성격묘사의 예시, 상세한 시대 배경 등은 거의 모두 생략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위 인용문의 밑줄 부분 및 ‘…중략…’ 혹은 ‘…후략…’으로 표시된 부분에는 대체적으로 그러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생략에 의해 『중등교육국문독본』의 내용은 『국문학역대선』의 그것과는 크게 다른 양상을 보인다.

1. 『겐지모노가타리』 속 불의(不義) 사건의 은폐

먼저 히카루겐지와 가오루라는 주인공을 소개하는 첫 번째 문장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 차이를 다시 한 번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국문학역대선』	『중등교육국문독본』
겐지모노가타리, 전후 54권(卷), 전반은 <u>후지씨(藤氏)가 아닌 어머니에게서 태어난</u> 히카루겐지(光源氏)를 주인공으로 하여, <u>그 성공한 연애를 서술하고</u> , 후편 우지(宇治)10첩은 <u>표면상으로 겐지의 자식이지만 실은 자식이 아닌</u> 가오루 대장(薰大将)을 주인공으로 하여, <u>그 실패한 연애를 서술하였다.</u>	겐지모노가타리는 <u>무라사키시키후(紫式部)가 쓴 것으로</u> 54첩(帖). 전반은 히카루겐지(光源氏)를 주인공으로 하고, 후반 10첩은 가오루(薰) 대장을 주인공으로 한다.

위 표에서 밑줄이 쳐진 곳은 다른 한 쪽에는 없는 부분이다.

먼저 『중등교육국문독본』에는 ‘겐지모노가타리는 무라사키시키후(紫式部)가 쓴 것’이라며 저자를 소개하고 있으나, 『국문학역대선』에는 그 내용이 없다. 실은 『국문학역대선』은 해당부분의 전 단계에서 즉 『무

라사키시키투부 일기(紫式部日記)』에 대한 설명 및 평언을 하는 과정에서 이미 무라사키시키투부가 『겐지모노가타리』의 작자임을 밝혔다.¹⁶⁾ 『중등교육국문독본』은 그 부분을 생략하였으므로, 『겐지모노가타리』를 소개하는 해당 단락에서 명시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국문학역대선』에는 『겐지모노가타리』의 각각 전반부와 후반부의 주인공인 히카루겐지와 가오루에 대한 설명이 있으나, 『중등교육국문독본』에서는 대부분 생략되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국문학역대선』은 히카루겐지의 어머니가 ‘후지씨(藤氏)’ 즉 후지와라(藤原) 집안이 아닌 것에 초점을 두고, 그러한 배경을 지닌 히카루겐지가 모든 연애에 성공한 것이 전반부의 주요 내용이라고 설명한다. 실은 이 부분은 후술하는 바와 같이 하가 아이치의 역사의식, 즉 헤이안 시대 귀족의 이상(理想)이 ‘현세의 부귀와 영예’이며 그 ‘허영’을 만족시키기 위해, 후지와라씨가 다투어 딸들을 궁중으로 시집을 보냈다는 인식에 기반한 것이다. 『중등교육국문독본』은 이러한 설명을 생략함으로써 하가 아이치의 헤이안 시대에 대한 인식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글이 되었다.

또한 가오루에 관한 기술을 보면 『중등교육국문독본』에서는 ‘표면상으로 겐지의 자식이지만 실은 자식이 아닌’이라는 설명이 생략되었다. 가오루는 겐지의 부인인 온나산노미야(女三宮)와 가시와기(柏木)의 밀통에 의해 태어난 인물인데,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은 히카루겐지와 새어머니 후지쓰보(藤壺) 사이에 비밀리에 태어난 아이가 급기야는 즉위까지 한 것에 대한 인과응보적인 성격이 매우 짙은 사건이다.¹⁷⁾ 즉 ‘표면상으

16) 『国文学歴代選』, p.30. “무라사키시키투부의 인격이 과대평가된 것은 그 저서 겐지모노가타리의 현란함에 현혹된 것이다. ……(紫式部の人格の過大視せられたるは其著源氏物語の絢爛なるに眩せられたるによる.) ……”

17) 阿部秋生·今井源衛·秋山虔·鈴木日出男 校註, 『源氏物語4』, 新編日本古典文学全集, 小学館, 1996, p.299.

“내가 살아오면서 두려워한 것에 대한 인과응보인 듯하다. 이 세상에서 이렇게 생각지도 못한 일을 당했으니 후생에서는 죄가 조금 가벼워지겠지, 라고 생각하

로 겐지의 자식이지만 실은 자식이 아닌'이라는 설명은, 가시와기의 불의(不義) 그리고 나아가서는 히카루겐지의 불의(不義)를 내포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중등교육국문독본』은 그러한 가오루에 대한 설명을 완전히 생략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겐지모노가타리』에 그려진 불의(不義)의 사건을 모두 은폐한 것이다.

이어 『국문학역대선』은 『겐지모노가타리』가 헤이안 시대 '제일의 대작'으로 손꼽히는 이유에 대해서 최대의 장편소설이라는 것과 함께, '각색'이 '정연'한 것, 그리고 히카루겐지를 둘러싼 많은 여성들의 인물상이 다양하다는 것을 들고 있다. 중략된 ①에는 이러한 여성들의 다양한 성격과 다채로운 연애를 묘사하기 위해, 무라사키노우에(紫の上), 로쿠조노미야스도코로(六条御息所), 아오이노우에(葵の上), 겐노나이시(源内侍), 후지쓰보(藤壺), 다마카즈라(玉鬘) 등의 다양한 신분의 여성들을 등장시켰다는 설명이 나온다. 다시 말하면, 무라사키시키키부는 '각종 인격, 연애의 모든 종류'¹⁸⁾를 묘사하기 위해서 히카루겐지와 가오루라는 성향이 전혀 다른 두 주인공과 다양한 환경에 있는 여성들을 등장시켰으며, 남녀 간의 다채로운 연애 양태를 표현하기 위해 급기야는 '형인 황태자의 눈을 속이고는 오보로즈키요(朧月夜)와 밀통하고, 아버지인 천황 눈을 숨기고는 후지쓰보(薄雲女院)와 밀통'¹⁹⁾하는 이야기를 썼다는 것이다. 그런데 『중등교육국문독본』에는 이 부분이 모두 생략되어 있다.

이로 인해 『국문학역대선』과는 달리 『겐지모노가타리』 속에 등장하는 불의의 사건들이 전혀 언급되지 않고, 단순히 '각종 여성의 성격'이 '명료'한 작품 즉 다채로운 인물상이 등장하는 작품으로만 서술되고 있는 것이다.

신다(わが世とともに恐ろしと思ひし事の報いなめり, この世にて, かく思ひかけぬことにむかはりぬれば後の世の罪もすこし軽みなんや, と思す)

18) 『国文学歴代選』, p.36. “種々の人格, 恋愛のあらゆる種類”

19) 『国文学歴代選』, p.36. “兄皇太子の目を掠めては朧月夜内侍と通じ, 父帝の目をぬすみては薄雲女院と通ず”

2. 헤이안 시대에 대한 부정적 평가의 생략

앞에서 논한 바와 같이 『국문학역대선』에서 『겐지모노가타리』의 특장점으로 등장인물의 다양한 성격과 연애를 꼽은 하가 아이치는, 그 다음으로 “헤이안초 상류사회의 심성을 영사하였으며, 염미한 필체, 궁정을 둘러싼 귀신(貴紳) 생활의 모습”을 잘 표현한 ‘사실(写実)적인 점 즉 ‘전기적’이지 않은 점을 들었다. 중략②부분에는 『겐지모노가타리』가 자칫하면 ‘사실(写実)적’으로 보이지 않는 사건, 즉 ‘전기적’으로 보일 위험이 있는 사건으로 로쿠조노미야스도코로(六条御息所)의 생령(生靈) 사건을 예로 들어 설명을 한다. 다음 <자료 5>는 중략②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자료 5> 『국문학역대선』

로쿠조노미야스도코로의 생령(生靈)이 아오이노우에를 죽인 것 같은 일은 당시 오카가미(大鏡), 에이가모노가타리(栄華物語)에도 여러번 나오는 것으로 당시의 미신일 뿐이다. 한 남자에 여러 명의 여자가 얽히는 애정관계에서 질투의 불꽃이 증장하는 것이 당연하기는 하지만, 당시의 원령은 결코 단순히 질투 때문만이 아니라 그 근저에는 역시 권력다툼에 있어서, 허영심을 상처받은 원한은 죽어도 누우치지 않는다²⁰⁾

로쿠조노미야스도코로는 히카루겐지를 사모한 나머지 살아 있는 몸에서 ‘생령(生靈)’이 빠져나와 히카루겐지와 애정관계에 있던 여성들 즉 유가오(夕顔)와 정실부인인 아오이노우에(葵の上)를 죽이는 대단히 특이한 인물이다. 『국문학역대선』은 이러한 생령이 『오카가미(大鏡)』 『에이

20) 『国文学歴代選』, p.37. “六条の御息所の生靈が葵上を取殺すが如きは当時の大鏡栄華物語にも数多見せるところにして当時の迷信のみ、一男数女の愛の關係は嫉妬の炎を増長せしむる事当然なりと雖も、当時の怨靈は決して單純なる嫉妬の為には非ず其根底は尚權力の争にして、虚栄心を落しめられたる怨恨は死しても悔いざるなり.”

가모노가타리(榮華物語)』같은 작품에도 나오는 소재로서 당시의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믿던 미신이기에 때문에, 『겐지모노가타리』에 로쿠조노미야스도코로의 ‘생령’이 나온다고 해서 결코 ‘전기적(伝奇的)’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를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더욱 주목해야 할 것은 “당시의 원령은 결코 단순히 질투 때문만이 아니라 그 근처에는 역시 권력다툼에 있어서, 허영심을 상처받은 원한은 죽어도 뉘우치지 않는다”는 부분이다. 즉 로쿠조노미야스도코로 생령의 소행이 단순히 히카루젠지에 대한 질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권력다툼’에서 ‘허영심을 상처’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는 뒤에서 더욱 상세히 논하겠지만, 헤이안 시대 귀족들의 이상이 ‘부귀와 영예’이며 불교의식도 ‘허영심의 만족’시키기 위함에 지나지 않는다는 하가 야이치의 헤이안 시대 인식에 기반한 언설이다. 즉 하가 야이치는 귀족사회가 지향하는 가치가 ‘허영심’이었던 헤이안 시대에 있어서 그 ‘허영심’을 ‘상처’받은 로쿠조노미야스도코로가 ‘생령’이 되어 다른 이를 해치는 것은 지극히 ‘사실(写実)적’인 묘사라는 것이다.

이와 같이 『국문학역대선』에서 하가 야이치는 『겐지모노가타리』에 대해 문학작품으로서 높은 평가를 하는 그 근거를 ‘사실(写実)적’인 묘사에 두며, 그 예로서 ‘허영심’이 팽배하던 당시에 그 ‘허영심’을 상처받은 로쿠조노미야스도코로가 ‘생령’으로 변한 것을 들었다. 그러나 『중등교육국문독본』은 발췌과정에서 그러한 로쿠조노미야스도코로의 예를 생략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본 헤이안 시대를 ‘부귀와 영예’ 그리고 ‘허영심’이 팽만한 시대라고 한 하가 야이치의 인식이 완전히 배제된 글이 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하가 야이치의 헤이안 시대에 대한 인식은 중략③으로 표시된 부분에서 한층 더 강조되는데, 다음은 그에 해당하는 문장이다.

〈자료 6〉 『국문학역대선』

헤이안초 귀신(貴紳)이 이상(理想)으로 여기는 것은 현세의 부귀와 영예다. 불교가 융성한 시대라고 칭하기는 하나, 사후의 안심(安心)을 걱정하는 것은 아니다. 부귀와 영화의 중심은 바로 황실(皇室)에 있다. 당시의 후지와라씨(藤原氏) 일족이 이미 유파가 많이 나누어져 있어 다투어 궁정에 딸을 보내 외척의 권리를 쥐려했던 것은 역사가 증명하는 일이다. 외척인 것과 아닌 것과는 영고성쇠가 나뉘는 지점으로, 세상의 인정도 또한 이와 함께 반복된다. 그렇기에 아름다운 옷과 아름다운 음식과 저택을 마련하고, 많은 여인들을 부양하며, 부귀가 뜻대로 된다면 좋은 일인 것이다. 불사를 짓고, 강회(講會)를 여는 것도 실은 허영심의 만족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권문에는 가마와 말들이 군집하고, 실의에 빠진 사람의 풀이 무성한 문은 닫혀 있다. 겐지모노가타리의 히타치노미야(常陸宮) 우치하치노미야(宇治八宮)와 같은 황족이라 해도 여기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천황이라고 하여도 또한 한 번 그 자리를 물러나면 권위가 옛날 같지 않다. 스자쿠인(朱雀院)이 온나산노미야를 겐지에게 맡긴 것 등은 이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허영에 들뜨고 권위에 아부한 경박한 분위기는 헤이안초 문화 전면을 덮고 있다. ……²¹⁾

하가 야이치는 헤이안 시대의 귀족사회에 대해 대단히 신랄한 평가를 하고 있다. 불교가 융성한 시대라고는 하나, 실제로 귀족들이 이상(理

21) 『国文学歴代選』, p.38. “平安朝の貴紳の理想とせるところは現世に於る富貴と榮譽となり。仏教隆盛の時と称すと雖も、死後の安心に懸念せしには非ず。富貴と榮譽との中心は即ち皇室に在り當時の藤原氏の一族は門流已に盛にして争うて皇廷に向つてその女を進めて外戚の權を採らんとせるは歴史の証明する所たり。外戚たると否とは榮枯盛衰の分るゝ所にして、世間の人情も亦之と共に反復せり。故に華衣美食邸宅を壯にし、多くの侍姫を養ひ、富貴意の如くなれば即ち可なり。仏寺を修し、講會も營むといふも実は虚榮心の満足に過ぎず。權門には車馬當に群集し、失意の人は八重葎其門を鎖せり。源氏の常陸宮、宇治八宮の如き皇族して亦之を免るゝ能はず。天皇と雖も亦一度位を去り給へば權威復曩日の如くならず。朱雀院が女三の宮を源氏に託し給ふが如き之を知るべし。虚榮にあこがれ、權威に阿附せし輕薄の風は平安朝文学の全面を蔽へり、……”

想)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후의 안심’이 아니라 ‘현세의 부귀와 영예’이며, 그 ‘부귀와 영화의 중심’이 바로 ‘황실’이기 때문에, 후지와라씨가 앞다투어 궁정으로 딸을 보내 외척이 되려고 한다는 것이다. 또한 불사를 짓고 법회를 개최하는 것도 ‘실은 허영심의 만족에 지나지 않는’ 것이었다고 비판하며, 권력을 가진 자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모여들지만, 그렇지 못한 자에게는 등을 돌려 발길이 뜸해져서 그 문 앞이 풀로 무성해 질 정도라는 엄중한 평가를 내린다. 그리고는 이러한 세상 사람들의 부귀와 영예에 대한 욕구 즉 ‘허영심’은 그 상대가 ‘황족’이어도 마찬가지로, 한번 권력에서 멀어지면 영락할 뿐이라고 명언한다. 『겐지모노가타리』의 등장인물 히타치노미야, 우지노하치노미야는 실로 그런 황족의 조락을 그린 것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심지어 ‘천황’도 예외일 수 없어서, 『겐지모노가타리』에서 양위를 한 스자쿠인이 당대의 권력가인 히카루겐지에게 자신의 딸을 시집보낸 것은, 이미 ‘천황’에서 물러난 자에게는 더 이상 권위와 권력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하가 야이치는 이러한 헤이안 시대를 ‘사실(写実)적’으로 묘사한 『겐지모노가타리』를 비롯한 여타 문학작품에 대해서 ‘허영에 들뜨고 권위에 아부한 경박한 분위기는 헤이안초 문학 전면을 덮고 있다’라는 평언을 남긴다.

그러나 위와 같이 헤이안 시대의 귀족사회에 대해 참으로 냉엄한 평가를 내리고, 『겐지모노가타리』의 문학작품으로서의 가치는 그러한 헤이안 시대를 ‘사실(写実)적’으로 묘사한 점이라는 하가 야이치의 인식은 『중등교육국문독본』에서는 엿볼 수 없다. 『중등교육국문독본』에는 헤이안 시대에 대한 평가 및 그와 관련된 등장인물 예시 부분이 완전히 생략된 채 “겐지는 실로 헤이안초 상류사회의 심성을 영사하였으며, 염미한 필체, 궁정을 둘러싼 귀신(貴紳) 생활의 모습을 잘 전하였”고, 또한 “우쓰호모노가타리에 비하면, 대체적으로 한층 더 사실(写実)적이 되었으며, 더욱이 불교의 인과의 도리를 썼다”라고만 언급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상에서 논한 바와 같이, 『중등교육국문독본』은 『국문학역대선』을 발췌하는 과정에서 등장인물의 구체적인 예시, 시대적 배경 등을 생략함으로써, 『국문학역대선』에서 제시되었던 하가 아이치의 일본 헤이안 시대 사회에 대한 비판, 그리고 『겐지모노가타리』 속의 불의의 사건은 완전히 은폐되었다. 결과적으로 조선총독부에서 간행한 『중등교육국문독본』에 서술된 『겐지모노가타리』는 전체적으로 정연하고, 등장인물의 성격묘사가 다양하며, 헤이안 시대의 상류사회를 현실적으로 그려낸 작품이며, 그리고 와카(和歌)가 뛰어난 작품이었다. 『중등교육국문독본』의 『겐지모노가타리』는 『국문학역대선』의 많은 부분을 발췌, 편집 그리고 생략함으로써, 『국문학역대선』과는 사뭇 다른 서술이 되고 있는 것이다.

V. 나오며

일제강점기 하에 당시 조선에서 발행된 교과서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 보고가 있다. 그러나 보통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간행된 『중등교육국문독본』에 대한 연구는 아직 대단히 미비한 단계이다. 본고에서는 『중등교육국문독본』이라는 교과서가 어떠한 논리 하에 편집되었으며,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구명하는 첫 단계로 권8에 게재되어 있는 ‘헤이안초 시대의 문학’ 특히 『겐지모노가타리』와 관련된 서술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해당 글이 1908년 일본에서 발행된 『국문학역대선』에서 발췌된 것이라는 것을 밝혔다. 또한 『국문학역대선』과 『중등교육국문독본』의 해당부분을 비교분석한 결과, 『중등교육국문독본』은 전혀 다른 글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국문학역대선』에서 『겐지모노가타리』는 허영심을 좇는 헤이안 시대 귀족들을 있는 그대로 사실적으로 묘사한 작품이며, 불의의 사건 등을 통해 각양각색의 연애 양태를 서술한 대작으

로 평가되었지만, 『중등교육국문독본』은 하가 아이치의 헤이안 시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그리고 『겐지모노가타리』 속에 나오는 불의의 사건 등을 생략함으로써, 단순히 상류사회를 현실적으로 묘사한 대작이라는 지극히 평면적인 서술이 되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교과서라는 미디어를 통해, 일본 헤이안 시대의 귀족사회의 부(負)의 측면을 은폐하고, 일본 문학작품 속에 기술된 불의의 사건들에 대해 철저히 침묵하면서 『겐지모노가타리』를 소개하고 있는 것이다.²²⁾

이는 물론 『겐지모노가타리』가 담고 있는 내용 자체가 중등교육에 적합하지 않기에 ‘교육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진 편집행위라는 측면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다. 그러나 하나의 문학작품이 시대적 잣대에 따라 저마다 다른 가치로 이용되고 있다는 것, 더욱이 그것이 새로운 논리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저작물을 통해서가 아니라, 편집과 발췌행위에 의한 재구성이었다는 것은 대단히 중대한 사안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중등교육국문독본』은 하가 아이치라는 당시 일본어·일본문학계의 권위를 빌어 『겐지모노가타리』가 담고 있는 표현세계와 문학작품으로서의 가치를 외면한 채, ‘일본’문학작품의 탁월함만을 강조하는 굴절된 서술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서술들은 ‘교과서’라는 절대 신뢰를 동반하는 미디어를 통해 『겐지모노가타리』의 작품세계를 단편화, 평면화했던 것이다. 日本空聞

논문 투고일 : 2019년 10월 30일

논문 심사일 : 2019년 11월 24일

게재 확정일 : 2019년 12월 10일

22) 필자의 조사 결과, 하가 아이치의 헤이안 시대 문학 관련 문장은 당시 일본에서 간행된 교과서들에도 게재되어 있다. 본고에서 언급한 『중등교육국문독본』을 한층 더 심도 있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당시 일본에서 사용된 교과서들과의 비교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서는 별도의 논고에서 다루고자 한다.

참고문헌

- 김영심, 「동화화(童話化)된 ‘국민문학: 일제 『소학국어독본』속의 겐지모노가 타리」, 『일본연구』 45권, 2010.
- 阿部秋生·今井源衛·秋山虔·鈴木日出男 校註, 『源氏物語 4』, 新編日本古典文学全集, 小学館, 1996.
- 有働裕, 「小学校国語教材「源氏物語」と時局—「サクラ読本」における本居宣長—」, 『国語国文学報』 55, 愛知教育大学国語国文学研究室, 1997.
- 金孝淑, 「植民地における『源氏物語』」, 『平安朝文学』 復刊27, 平安朝文学研究会, 2019.
- 久保田淳·山口明穂 校註, 『六百番歌合』, 新日本古典文学大系, 岩波書店, 1998.
- 小林正明, 「昭和戦時化の『源氏物語』」, 『源氏文化の時空』, 森話社, 2000.
- 朝鮮総督府, 『中等教育国文読本』 卷8, 朝鮮書籍印刷株式会社, 1933.
- 芳賀矢一, 『国文学歴代選』, 東京文会堂, 1908.
- 八尾勘平衛 編, 『絵入本 源氏物語』, 寺町通(洛陽), 1654.
- 藤岡忠美·犬養廉·中野幸一·石井文夫 校註, 『和泉式部日記 紫式部日記 更級日記 讃岐典侍日記』, 新編日本古典文学全集, 小学館, 1994.
- 文部省 編, 『小学国語読本 尋常科用 卷十一』, 東京書籍, 1938.
- 八木雄一郎, 「中学校教授要自における教科内容決定の根拠—「講読(「国語講読」)および「国文学史」の規定の変遷とその意味—」, 『学校教育学研究紀要』, 第2号, 2009.

Abstract

“Tyûtôkyôikukokubuntokuhon(中等教育国文読本)”
as a Media
—Textbook Description by Editing, Excerpt,
Concealment—

Hyo-Sook Kim

“tyûtôkyôikukokubuntokuhon(中等教育国文読本)” is a Japanese textbook published by the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 Volume 8 contains an introductory text about “The Tale of Genji”. As a result of the investigation, it was found that this sentence was excerpted from the “kokubungakurekidaisen(国文学歴代選)” written by Haga Yaichi .

By the way, when comparing the relevant parts of “tyûtôkyôikukokubuntokuhon” and “kokubungakurekidaisen”, it was found that there are many omissions. “kokubungakurekidaisen” defined Japan's Heian period as an era when “Vanity” prevailed, and “The tale of Genji” was highly regarded as a work that portrayed the Heian period as it was. However, “tyûtôkyôikukokubuntokuhon” omitted all negative evaluations regarding the Heian period and emphasized that the real society was copied as it was. By such omission, Haga Yaichi's negative appraisal about the Heian period was completely concealed in “tyûtôkyôikukokubuntokuhon”.

The textbook published by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 “tyûtôkyôikukokubuntokuhon”, conceals negative evaluations of Japan's Heian period by editing and emphasizes only the excellence of “Japanese literature”.

Key words

Textbooks of the Japanese colonial era, Japanese textbook for high school students published by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tyûtôkyôikukokubuntokuhon, 中等教育国文読本), *The tale of Genji*, *History of Japanese literature* by Haga yaichi(kokubungakurekidaisen, 国文学歴代選), Haga yaichi(芳賀矢一)